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 연구 -마음 챙김의 매개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정관희, 조성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Study of Grit and Interpersonal Propensity in Delinquent Adolescent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Kwan-Hee Jung, Sung-Je Cho*
Division of Culture and Arts Contents, 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이 완화요인으로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상도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 보호기관 위탁기관 중에서 심리상담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비행 청소년 교육생 155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Cronbach's α) 값이 0.843 이상이므로 신뢰도는 확보되었다. 통계분석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기술통계 분석,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그릿,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수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그릿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음 챙김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면, 대인관계 성향을 향상하는 방안은 그릿과 마음 챙김이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릿과 마음 챙김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K 도에 소재한 비행 청소년을 한정하여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aimed to establish the mediating effect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interpersonal propensity of delinquent adolescents, and confirmed whether mindfulness appears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interpersonal propensity. An offline survey was conducted of 155 delinquent juvenile trainees participating in a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organized by youth protection agencies located in Gyeongsang-do.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October 10 to December 10, 2022.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was used for data analyses, including frequency, correlation, descriptive statistics, and regression analyses. Cronbach's α value was 0.843 or higher, and thus reliability was secured. The results showed that all sub-variables of grit,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propensity had positive (+) correlations. Moreover, we found that mindfulness exert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grit on interpersonal disposition. We established that grit and mindfulness are important factors for improving interpersonal disposition. Therefore, program education on grit and mindfulness-centered group counseling is required to help delinquents grow into normal adults. However,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 sample was limited to a random sample group of delinquents located in K province, which limits the generalization of the study results.

Keywords : Mediated Effects, Mindfulness, Grit, Interpersonal Propensity, Delinquent Adolescents

*Corresponding Author : Sung-Je Cho(Dongbang Culture Graduate University)

email: chosj715@daum.net

Received February 23, 2023

Accepted April 7, 2023

Revised March 22, 2023

Published April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비행 청소년의 15.9%는 친구 또는 후배 등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1]. 학교폭력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2],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다수는 심리적 외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3,4]. 또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5],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청소년일 때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충동적이고 사회적 규제나 규범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6]. 특히 청소년의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비행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7]. 따라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대인관계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비행 청소년은 '사회적 또는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무단결석, 가출 등의 학교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거나,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학교폭력 등의 범법 행동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되며[8], 대인관계 대상은 부모 관계,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로 분류되며, 그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행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특히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라 대인관계 성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9]. 따라서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성향에 따라 비행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인관계 성향이란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역할 성향과 개인이 타인에게 어떤 언행을 기대하는가의 사회관계 성향, 타인의 언행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의 표현 성향'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역할 성향', '사회관계 성향', '표현 성향'을 대인관계 성향의 구성요소[10]로 보았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신영훈, 박선영[11]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족, 친구, 교사)가 자살 생각과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귀숙[7]은 대인관계(가족관계, 교사 관계)가 청소년의 비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이해 및 예방을 위해 대인관계 개선이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대인관계 성향은 인터넷 중독 수준 [12], 심리 경향 [13], 자아존중감[14], 가족 건강성 및 문화 성향[15], 사회성 발달[16]

등과의 관련성이 탐색 되었다. 또한 비행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들은 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17], 군집 형성과 문제행동[18] 등으로 이루어졌다. 반면, 대인관계 성향의 원인 변인인 그릇과 마음 챙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비행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 가운데 하나가 그릇이다. 청소년 비행 행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릇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19].

그릇이란 '그릇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패,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노력과 흥미를 유지하며 도전하는 것'을 의미이며[20], 그릇은 청소년의 긍정 변인으로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이 된다[21]. 그릇과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진병주, 정혜원[22]은 대인관계(친구 관계, 교사 관계)에 그릇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 그릇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3]. 따라서 청소년의 그릇은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은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능력 형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24]. 또한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25]. 마음 챙김과 대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마음 챙김이 대인관계능력을 도울 수 있는 보호 요인임을 확인되었다[26]. 또한 마음 챙김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윤성령, 박미하[28]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마음 챙김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처럼 비행 청소년이 그릇,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개인이 가진 마음 챙김이 어떻게 매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다소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그릇과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을 향상하게 하기 위한 그릇 및 마음 챙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그릇,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

째,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한편, 본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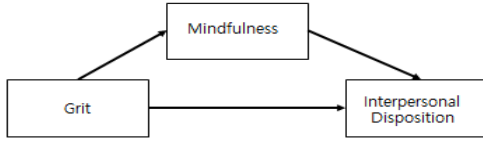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의 인과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여, 비행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하는 측정 도구는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에 관련한 내용과 신뢰도 및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이런 연구목적에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의 인과관계에서 마음 챙김은 매개 영향을 검증하였다.

1.3 기존 논의 검토

그릿은 청소년의 긍정 변인으로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이 된다[21]. 특히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가 증가하였고[5],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은 청소년일 때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충동적이고 사회적 규제나 규범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청소년에게는 그릿이 긍정 변인으로 부정적인 면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 내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무기력, 그릿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3]. 따라서 청소년의 그릿은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변인은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능력 형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24]. 또한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유능성에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25]. 그러나 아쉽게도 비행 청소년이 그릿,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

한 관계에서 개인이 가진 마음 챙김이 어떻게 매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다소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이 완화요인으로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경상도 지역에 소재한 청소년 보호기관의 위탁기관 중에서 심리상담센터 교육생 155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 시간은 10~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자료 5부를 제외한 15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1. Subject of study

		Frequency	Percent
Gender	Man	110	73.3
	Woman	40	26.7
Family composition	Parent family	132	88.0
	Other family	18	12.0
Income level	Upper level	34	22.7
	Intermediate level	63	42.0
	lower level	53	35.3
Total		150	100.0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19.0을 사용하여 양적 연구(통계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자가 110명(73.3%), 여자가 40명(26.72%)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성은 양부모 가족이 132명(88.8%), 기타 가족이 18명(12%)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상 수준이 34명(22.7%), 중 수준이 63명(42.0%), 하 수준이 53명(35.3%)이었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일반적 특성 문항은 3문항,

그릿은 8항, 마음 챙김은 20문항, 대인관계 성향은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은 성별, 가족구성, 소득 수준 등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2.2.1 그릿 척도

그릿 척도는 Duck worth(2006)가 개발한 미국의 아동용 그릿 척도(8-Item Grit Scale for Children)를 김희명·황매향(2015)이 한국어판 아동용 그릿 척도로 타당화 척도를 사용한 고용자(26)척도이다. 이 척도는 흥미 유지(4문항), 노력 지속(4문항)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모든 문항의 점수를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총 8개의 문항 중 흥미 유지(consistency of interests) 4문항은 역 코딩하였다. 고용자(2022)의 연구에서는 흥미 유지가 .668, 노력 지속이 .748, 전체신뢰도(Cronbach's α)는 .70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흥미 유지가 .721, 노력 지속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43,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23으로 신뢰도 면에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2.2.2 마음 챙김 척도

마음 챙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박성현(2006)이 제작한 마음 챙김 척도(Mindfulness Scale)를 사용한 김현주(27) 척도이다. 이 척도는 4가지 요인인 현재 자각, 주의집중, 비판단적 수용, 탈중심적 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0문항이다. 마음 챙김 척도는 Liker 식 5단계 평정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매우 그렇다' 까지)로 측정하였으며, 전체 문항을 역 채점한 후 점수가 많을수록 마음 챙김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현주(201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3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84~.7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910이며,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752~.864로 나타났다.

2.2.3 대인관계 성향 척도

대인관계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Lary의 대인관계 행동 모형, Schutz의 FIRO(Fundamental Interpersonal Relations Orientation), Krech 외가 밝힌 대인적 반응 특성을 참조하여 안범희(1984)가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김정원(2003)이 수정한 것을 박금숙(28) 연구에서 대인관계 성향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성향 척도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가지 하위영역으로 역할 성향 4문항, 사회관계 성향 7문항, 표현 성향 6문항 등 총 17문항이다. Likert 식 5점 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적 질문의 문항은 역 코딩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성향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높을수록 강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 척도를 사용한 박금숙(2015)의 연구에서는 전체 신뢰도(Cronbach's α) 값이 모두 0.63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역할 성향 0.630, 사회관계 성향은 0.816, 표현 성향은 0.667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성향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 값이 0.843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가운데 역할 성향 0.748, 사회관계의 0.766, 표현 성향은 0.785로 기존 연구에 비해 차이가 별로 없었다. 각 측정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 값이 최소 수준인 .60 이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3 자료 분석- 통계프로그램 SPSS WIN 19.0 활용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WIN 19.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hronbach's α 를 활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비행 청소년의 성인 애착,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그릿과 대인관계 성향 사이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3.1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릿은 3.42로 나타났으며, 흥미 유지는 3.25, 노력 지속은 3.55로 나타났다. 마음 챙김은 3.31로 나타났으며, 현재 자각은 3.30, 주의집중은 3.31, 비판적 수용은 3.30, 탈중심적 주의가 3.24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성향은 3.28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가 3.36으로 가장 높았고, 역할 성향이 3.34, 표현 성향이 3.32로 나타났다.

Table 2. Reliability verification for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ubfactor	N	Mean	Std. Deviation
Grit	Keep Interest	150	3.25	.47
	Continued Effort	150	3.55	.49
	Entire	150	3.42	.43
Mindfulness	present Awareness	150	3.30	.47
	Attention	150	3.31	.51
	Acceptance of Criticism	150	3.30	.56
	Decentralization	150	3.34	.55
	Entire	150	3.31	.45
	Role Orientation	150	3.34	.57
Interpersonal Disposition	Social Relations	150	3.36	.54
	Expression Tendency	150	3.32	.50
	Entire	170	3.28	.46

3.2 측정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릿, 마음 챙김, 대인관계 성향의 하위변수 간에는 모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r=0.158-0.742$). 변수 간의 관계는 본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별 타당성이 있다.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easurement variables

	Keep Interest	Continued Effort	present Awareness	Attention	Acceptance of Criticism	Decentralization	Role Orientation	Social Relations	Expression Tendency
Keep Interest	1								
Continued Effort	.557***	1							
present Awareness	.315***	.262***	1						
Attention	.352***	.263***	.626***	1					
Acceptance of Criticism	.285***	.292***	.687***	.628***	1				
Decentralization	.287***	.158*	.645***	.577***	.545***	1			

Role Orientation	Social Relations	Expression Tendency
.673*** .514*** .247*** .329*** .188*	.742*** .445*** .310*** .405*** .429*** .335*** .570***	.655*** .559*** .212** .379*** .318*** .253*** .545*** .517***

* $p<.05$, ** $p<.01$, *** $p<.001$

3.3 그릿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

그릿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매개효과가 존재하기 위해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첫째, 그릿은 마음 챙김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그릿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릿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완전 매개효과, 그릿의 영향이 2단계보다 감소하면서 영향을 미치면 부분 매개효과라 한다.

Table 4.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on the effects of grit on interpersonal tendencies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R ² (Adj R ²)	F	t	p
	B	Std. Error					
Mindfulness (constant)	1.86	.257		.142 (137)	27.91	7.25	.000
	Grit	.39	.075				
Interpersonal Disposition (constant)	.340	.166		.653 (651)	316.50	2.050	.042
	Grit	.859	.048				
Interpersonal Disposition (constant)	.092	.186		.668 (664)	167.98	.494	.622
	Grit	.80	.051				
Mindfulness	.133	.049	.131			2.72**	.007

Sobel test : $z=2.413^{**}$ ** $p<.01$, *** $p<.001$

1단계에서 그릿은 마음 챙김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t=5.284$, $p<0.001$), 2단계에서 그릿은 대인관계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17.791$,

$p < 0.001$). 3단계에서 마음 챙김은 대인관계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t=2.720$, $p < 0.01$), 그것은 대인관계 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t=15.758$, $p < 0.001$).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인 15.75가 2단계인 17.79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Sobel test에서도 $Z=2.41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것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음 챙김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그것과 대인관계 성향과 관련하여 심리적 변인 중에서 마음 챙김이 의미 있는 매개효과가 분석됐다. 지금까지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인터넷 중독 수준 [12], 자아존중감[14], 가족 건강성 및 문화 성향[15], 사회성 발달[16]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것들 각각이 청소년 발달단계와 관련되는 방식을 탐구해 왔다. 하지만 그 분석들은 청소년 발달단계와 관련된 주변 환경 변인들을 탐색하는 데 집중하였을 뿐, 마음 챙김이 비행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것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발달단계 중에서 대인관계 성향과 그것과 관련하여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마음 챙김에 대한 그것의 설명력은 14.2%로서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그것이 청소년의 마음 챙김에 설명력이 50%를 가진다는 선행연구 결과[29]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비행 청소년의 그것요인은 대인관계 성향에 대한 설명력은 65.3%로서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비행 청소년의 그것요인과 대인관계 성향에서 마음 챙김이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그것이 대인관계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30]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한편 마음 챙김은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대학 생활 적응에 사이에서 조절 효과가 보인다는 선행연구 결과[31]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비행 청소년들이 학교 환경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그것이 중요하며, 그에 따라 마음 챙김이 대인관계 성향 향상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의 긍정 심리학에 초점을 맞추어 대인관계 성향 향상방안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행 청소년의 그것과 대인관계 성향 관계에서 마음 챙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그것과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에서 마음 챙김이 완화요인으로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하는 측정 도구는 문헌 연구와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연구의 문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측정 도구에 관련한 내용과 신뢰도 및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것은 마음 챙김과 대인관계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그것이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마음 챙김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비행 청소년의 마음 챙김에 대한 그것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여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대한 비행 청소년 심리상담 교육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비행 청소년들의 그것이 마음 챙김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비행 청소년의 그것요인과 대인관계 성향에서 마음 챙김이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그것과 마음 챙김 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이 요구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K도에 소재한 비행 청소년을 한정하여 임의 표본집단으로 설문조사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 지역을 확대하여 비행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향후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 발달 증진을 위해 마음 챙김 뿐만 아니라 긍정적 심리자본에 관한 연구도 요구된다.

이상의 논의된 바와 같이 비행 청소년들에게 대인관계 성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음 챙김을 통한 그것이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비행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대해 설명력이 높은 다른 변인들, 이를테면 긍정심리 자본(자신감, 희망, 회복력, 낙관성)이 어떤 영향력을 갖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H. H. Hwang, "Survey on the living conditions of users of at-risk youth support organization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22, pp.21-22.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11
- [2] H. Y. Lee, "Ethnography on Experiencing School Viol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 25, pp. 275-309, 2013.
<http://www.riss.kr/link?id=A104142655>
- [3] H. S. Kim, "An Effect of Persisten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Youths' Physical, Socioemotional, and Cognitive Development",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5, No.2, pp.121-143, 2013.
<http://www.riss.kr/link?id=A99705519>
- [4] S. M. Lee, J. Y. Park, "Understanding of the Life of Colleg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omplex Trauma in Childhood -Focusing on Qualitative-biographical Methodology of Schütz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21, No.4, pp.279-310, 2020.
<http://www.riss.kr/link?id=A107041774>
- [5] S. H. Cho, H. S. Kim,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in Adolescents on Complex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1, No.12, 2021, pp.621-631.
<http://www.riss.kr/link?id=A107981299>
- [6] H. N. Ah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Trauma o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in Adolesc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17, No.1, pp.217-231, 2005.
<http://www.riss.kr/link?id=A104205053>
- [7] K. S. Choi,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rsonal relationship on delinquency : Focusing effect of game addic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Uiduk University, Gyeongsangbuk-do, Korea, pp.55-56, 2015.
- [8] H. J. Ji,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Strength, Impulsivity, Emotional Function, Empathy, and Happiness in Juveniles offend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ersity, Kyonggi, Korea, pp.6-7, 2022.
- [9] J. W. Kim, *Study on the propens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of adolescent with bullyi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47-49, 2000.
- [10] I. J. Hwang, *Influences of Youths' 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of Dancing upon Their Sociality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5-14, 2008.
- [11] Y. H. Sin , S. Y. Park, "Effects of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 Stress on Suicidal Ideation: Examination of the moderating role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Vol.18, No.1, pp.235-259, 2016.
<http://www.riss.kr/link?id=A101833985>
- [12] M. J. Lee, Differ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Disposition according to the Internet Addiction Tendency in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9, No.11, pp.201-211, 2009.
<http://www.riss.kr/link?id=A76568247>
- [13] M. K. Kim, H. S. Sim, J. H. Choi, "The Disposition Analysis of Juveniles's Interpersonal Relations by Jung's Psychological Tenden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y of Psychological Type*, Vol.7, pp.39-61, 2000.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346743>
- [14] J. W. Kim, K. W. Kim, "A Study on the Propensity to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elf-esteem of Adolescent with Bullying",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10, No.1, pp.21-35, 2003.
<http://www.riss.kr/link?id=A104583179>
- [15] B. S.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trengths, Cultural disposi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s in Adolescent's sex",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21, pp.91-103, 2009.
<http://www.riss.kr/link?id=A104332607>
- [16] W. J. Kang, "Interpersonal Relations on Social Development of Hearing Impaired Adolesc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Vol.13, No.3, pp.143-161, 2011.
<http://www.riss.kr/link?id=A82676866>
- [17] W. S. Lim, H. S. Choi, "Articles : The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on Juvenile Delinquents' Self-Esstem",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Review*, Vol.12, No.3, pp.147-170, 2010.
<http://www.riss.kr/link?id=A82570492>
- [18] S. J. Park, J. Y. Lee, J. Y. Chang, "The Clusters of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nd their Differences in Adolescent Behavioral",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4, pp.1649-1662, 2012.
<http://www.riss.kr/link?id=A104203317>
- [19] S. Y. Lee, *The Influence of Parental Attitude on Juvenile delinquency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Gri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pp.62-63, 2020.
- [20]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21] S. B. Lee, E. H. Bae, Y. W. Sohn, S. R. Lee, "Grit as a Buffer against Negative Feedback: The Effect of Grit on Emotional Responses to Negative Feedback",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 Vol. 30, No. 3, pp.25-45, 2016.
<http://www.riss.kr/link?id=A103641135>
- [22] B. J. Jin, H. W. Jung.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 Relationship with Friend and Teacher on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5, pp. 141-165, 2020.
<http://www.riss.kr/link?id=A106606138>
- [23] H. J. Le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adolescent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school and their academic helplessness and grit*,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2021, pp.61-70.
<http://www.riss.kr/link?id=T15736450>
- [24] D. H. Han, S. H. Lee, Y. A. Cho, "The Influence of Actual - Ideal Self - Discrepancies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among Undergraduates: A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and Interpersonal Anxiety",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3, No. 2, pp.397-415, 2016.
<http://www.riss.kr/link?id=A103674322>
- [25] Y. J. Ko, J. Y. Lee,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and the Self-Silencing on the Rel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28, No.1, pp.97-116, 2021.
 DOI: <https://doi.org/10.35734/karp.2021.28.1.005>
- [26] J. U. Kim, N. H. Kim,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Adult Attachment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and Matter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20, pp.529-55, 2019.
 DOI: <http://dx.doi.org/10.22251/ilcci.2019.19.20.529>
- [27] H. J. Cho, *The Effect of Mindfulness and Social Support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of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pp.36-39, 2017.
<http://www.riss.kr/link?id=T14570371>
- [28] S. R. Yeon, M. H. Park, "Adult Attachment and Mindfulnes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College Students",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Welfare*, Vol.6, No.4, pp.27-37, 2019.
 DOI: <http://dx.doi.org/10.20496/cpew.2019.6.4.27>
- [29] M. J. Ko, "The Effect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Grit on the Mindfulness of Youth at Risk", *Studies in Buddhist Literature*, Vol.20, pp.167-198, 2022.
<http://www.riss.kr/link?id=A108417664>
- [30] Y. J. Seo, Y. m. Kim, "Effect of Grit and Interpersonal Skill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Korean Academy of Basic Medicine & Health Science*, Vol.15 No.2, pp.93-100, 2022.
<http://www.riss.kr/link?id=A108400882>
- [31] G. C. Jeong., Y.H. Jin, "Moderating Effects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Health and College Life Adjustment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9, pp.430-440, 2019.

<http://www.riss.kr/link?id=A106373808>

정 관 희(Kwan-Hee Jung)

[정회원]



- 2017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원 농학과 (농학 석사)
- 2021년 2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교육학, 사회복지

조 성 제(Sung-Je Cho)

[정회원]



- 1997년 2월 : 홍익대학교 대학원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예술콘텐츠학과 교수

<관심분야>

문화콘텐츠, 교육학, 데이터베이스